

# 【10장을 열며】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대구의 학생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나라를 구하는 일에 뛰어들었고, 그때의 값진 피와 땀, 희생은 세월 이 흘러도 빛을 발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국의 길 에 앞장선 대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 1. 일제강점기 대구 학생들의 항일독립운동
- 2.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청춘의 궐기, 2 · 28 민주운동
- 3.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경상북도의 역사

# 1

# 일제강점기 대구 학생들의 항일독립운동

#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일제강점기 때 대구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알아보자. 또 그때 대구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항일 독립운동을 통해서 독립의 중요 성과 나라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 각해 보자.



일제강점기의 보통학교 국어교과서 조선어독본

일제강점기 때의 중·고등학교 생활

일제강점기 때 학생들은 6년 과정의 보통학교(지금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남학생은 고등보통학교(5년제), 여학생은 여자고등보통학교(3~4년제)에 진학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의 남자 중등교육기관(중·고등학교)으로 계성학교, 대구공립고 등보통학교(현 경북고), 대구상업학교(현 대구상원고), 대구농업학교(현 대구농업마이스 터고), 교남학교(현 대륜중·고) 등이 있었다. 여학교로는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북여고)와 신명여학교(현 신명고), 대구공립고등여학교(현 대구일중) 등이 있었다.

외교권을 강탈한 1905년의 을사늑약 체결 후 일본은 조선의 교육까지 통제하기 시작했다. 학교에 일본인 교사가 부임하고 일본어는 필수 과목이 되었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후에는 학교 교육을 통한 식민 지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전까지 외국어 과목이던 일본어는 '국어'로, 원래 '국어'였던 우리말 과목은 '조선어'가 되었다.

1938년부터 1945년까지는 조선의 교육, 학교, 학생이 가장 혹독하게 일본에게 통제당한 시기였다.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개조하려는 교육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시련 속에서도 항일운동에 적극 뛰어든 이들도 많았으니, 대구의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일본의 정책에 저항하는 운동에 참여하였다. 또 여러학교에서 학생들의 독립운동조직이 결성되었다.

# 어느 학생 일기에 담긴 일제강점기 학교생활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현 경북고) A학생과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북여고) K학생이 쓴 일기 몇 대목을 읽어 보자.





# K학생의 일기 중에서

# 1937년 5월 14일

조회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지금부터 대구 신사를 달성공원이라 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원이기에 모든 사람의 놀이터였지만 앞으로 그주변은 모두 다 신사의 영내이니 놀이터로 생각지 않도록 삼가라."는 훈화가 있었습니다.

# 1937년 6월 11일

방과 후 강당에 집합했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앉아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들었습니다. 1. 국어(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도 가능하면 상용하라. 학교에서는 물론이다.(…) 2. 국방에 대비하기 위해 우표를 국내에서팔고 있는데 아직 다 팔리지 않는다고 하니 본교 학생도마음이 있는 학생은 사무실에서 사라.



# A학생의 일기 중에서

# 1934년 3월 10일

오늘은 육군기념일이기 때문에 열병, 분열식을 거행하기 위해 8시 40분까지 학교에 모였다. 열병 때에 정렬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벌써 힘이 절반 이상 빠져버렸다. 분열식 때에 보조는 맞았지만 열병 때에 너무 힘을 주었기 때문에 목이 아파서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리고 신사 참배와 시가행진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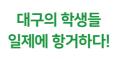
# 1934년 6월 2일

방과 후 대기실에서 강연이 있었다. 교장 선생이 '첫째는 칙어\*, 둘째는 교기, 셋째는 학생들의 생명'이라고 하셨다. 나는 생명이 중요한가, 칙어나 교기가 중요한가 생각했다. 생명은 한 번 없으면 돈을 몇 억엔 내도 또다시 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빴다.

(\*칙어: 일본 국왕이 선포한 교육칙어)



계성고 아담스관 앞의 3·1운동비





# 신라의 청소년 수련 조직 화랑도

화랑도는 신라 진흥왕 때 인 재 양성을 위해 만든 청소년 수련 조직이다. 화랑도를 이 끌던 사람을 화랑이라고 불렀 다. 화랑도는 15~18세의 청 소년으로 구성되었다. 화랑도 의 구성원들은 단체로 무예와 학문을 연마하였다. 또 금강 산 등 큰 산을 여행하면서 견 문을 넓히고 국토애를 키웠다. 화랑은 신라가 강대국으로 성 장하고 삼국통일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였다. 특히 화랑도 출신의 많은 인물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 화랑도 출신 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로는 신 라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 학교 교육을 받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학생은 선택받은 계층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적이고 차별적인 교육에 맞서 많은 학생이 특권과 안정된 미래를 버리고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다. 3·1 독립만세운동, 6·10 만세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등 조선의 학생들이 주도한 운동은 많다. 그 흐름 속에는 대구 학생들의 노력도 함께 였으니,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 계성학교의 독립만세운동과 혜성단 활동

대구의 3·1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8일에 일어났다. 하루 전인 3월 7일 밤, 계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다음날 있을 만세운동을 위해 학교 건물(현재의 아담스관) 지하에 모여서 비밀리에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문을 인쇄했다. 이들은 3월 8~10일에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부 교사와 다수의 학생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기도 한다.

계성학교의 항일독립운동은 4월에도 이어졌다. 17일 몇몇 학생이 혜성단을 결성하는 데, 이는 대중의 독립의식을 고취하고 국내외에 독립운동을 일으키려던 항일 조직이었다. 만주까지 조직원을 파견하려 계획했을 정도로 그들은 의욕적이었다. 1919년 4월은 3·1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일본 경찰이 항일운동을 매우 강경하게 탄압하던 때였다. 이런 시기에 항일 조직을 만든 것은, 학생들에게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안타깝게도 혜성단은 결성 한 달 만에 조직이 발각되었고, 조직을 이끌던 주요 학생들은 검거되었다. 이 일로 9명의 계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고보 학생들의 동맹휴학 항일운동

대구고보(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는 1919년 계성학교와 더불어 대구 지역 항일학생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1919년 3·8 독립만세운동 때도 많은 학생이 참여했다. 그 후 1926년 3월에는 '조선인은 야만인'이라고 하는 일본인 교사의 발언에 반발해 그의 퇴직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으로 맞섰다가 오히려 학생 15명이 퇴학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후로도 일제의 교육정책에 맞선 등교와 수업 거부, 교내 농성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들은 좀 더 조직적인 항일운동을 위해 1927년 신우동맹이라는 비밀 학생조직을 만들어 동맹휴학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1928년 일본에 발각되며 관련 학생 105명이 체포되었고, 당시 재판에 회부된 29명 가운데 24명이 실형을 선고받는다.

# 대구사범학교 학생들도 나섰다!

대구사범학교는 교사 양성을 하는 곳이었다. 당시 사범학교는 서울·평양·대구 3곳에만 있었기 때문에 전국의 수재들이 입학했다.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은 문예부, 사회과학연구회, 다혁당 같은 모임들을 만들어 일제에 대한 저항의지를 키웠는데, 조선의 역사·문학 관련 책들을 읽거나 외부 인사를 초청해 독립군의 활약을 전해 듣는 식이었다. 문예부에서 학생들의 글을 모아 펴낸 「반딧불」이라는 책에는 일제의 패망을 바라는 시 작품이 실린 적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학생 활동은 1941년 일본 경찰이 항일 조직 관련 학생들을 무더기로 검거함으로써 타격을 받게 된다. 2년 후 최종 판결에서 3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그중 5명은 감옥에서 순국했다.

# 대구상업학교 학생들의 태극단 활동

1942년 5월 대구상업학교(현 대구상원고) 학생 이상호, 김상길, 서상교 등은 비밀 항일운동 조직인 태극단을 만들면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정한다.

- 군사학 연구에 더욱 힘쓴다.
- 재정 면에서는 우선 각자가 부담하고 애국 유지 선배들의 후원을 얻는다.
- 타 학교와 타 지역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투쟁을 계속하되, 형편에 따라 중국으로 집단 망명하여 투쟁을 계속한다.

이들이 태극단을 조직한 것은 계속되는 일본의 폭정과 조선인 학생에 대한 차별에 항거하기 위해서였다(일본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조선인 학생은 성적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시기였다). 이에 태극단 학생들은 일본군 입대를 반대하는 유인물 등을 배포하거나 동지들을 포섭하며 무장 투쟁까지 계획했다. 그러나 1943년에 발각되어 26명 단원 전원이 체포됐고, 단장 이상호를 비롯한 6명 학생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혜성단이 독립을 위해 펼친 활동

- \* 독립을 주장하는 글, 독립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호 소하는 글을 써서 대구 시 내에 배포
- \* 독립운동이 활발한 만주 지역에 혜성회 조직원을 파견하여 국내외 항일투쟁 연결시도
- \* 민족자본가들에게 독립운 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호소하는 편지 보내기



대구사범학교의 문예지 「반딧불」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발발한 한국전쟁 초기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불과 사흘 만에 북한군에게 점령당했다. 남쪽으로 계속 후퇴하던 대한민국 정부는 7월 16일 대구를 임시수도로 정했다. 경상감영 건물이 정부 청사가 되고, 경상북도 도지사 관사는 대통령 숙소 겸 집무실로 사용되었다. 대구 시내 각 학교를 비롯한 주요 시설도 군용으로 바뀌었다.

치열한 전투와 희생 끝에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 낸 국군은 경상북도 칠곡의 다부동전투를 비롯한 영천 신령전투, 포항 형산강전투 등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전쟁의 흐름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정규 군인뿐만 아니라 학업을 중단한 채 전 장으로 뛰어든 학생들의 공로도 무시할 수 없다. 학도병 또는 학도의용군이라고 불린 그들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젊은이들이었다.

당시 대구는 학도병을 모집하고 전선으로 내보내던 전투원 보급 기지였다. 한국전쟁 때 참전한 2만 7700여 명의 학도병 가운데 사망자는 2,5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 지역에서 참여한 약 2000여 명 중에도 19개교의 학생 148명이 전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북중(현 경북고) 53명, 대구농림학교(대구농업마이스터고) 30명, 대구상업중(상원고) 21명, 대구공업중(대구공고) 12명 등 여러 학교 학생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전사한 대구상업중 학생 중에는 야구부에서 활동했던 선수들도 있었다. 이들의 희생이 특히 컸던 지역이 포항이었다. 1950년 8월 11일 포항전투에선 71명의 학도병 중 47명이 전사하고 14명이 부상당했다.



서울피난대구연합중학교 기념 사진



학도병 모집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에 집중되었다. 1951년 정부는 학도병의 학교 복귀 지시 담화를 발표했다. 이때 대구에는 다른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피난 온 학생들이 많았다. 대구는 전쟁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교 시설을 군대에 넘겨 주어 교육시설이 크게 부족했다.

하지만 피난 학생들의 교육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대구에 피난 온 서울시 교육 관계자들이 대구에 피난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것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 결과 1951년 9월 20일 대구 향교 근처에 '서울피난대구연합중학교'가 문을 열었다. 13개 학급에 학생 수는 약 2,830명이었다.

피난학교의 환경은 나빴다. 판자로 지어진 건물인데다 교실은 맨바닥이었다. 긴 널빤지를 무릎에 얹어 책상으로 써야만 했다. 교과 서를 만들 종이가 부족해 UN에서 종이를 지원받았다. 그래도 교과서가 부족해서 학생들은 옆자리의 친구와 같이 교과서를 보며 수 업을 받았다.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배움의 열기는 뜨거웠다. 전쟁 중에도 학교에서 배운다는 것은 학생들의 삶에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뉴욕타임스》에 실리기도 했다.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끝이 났고, 대구연합중학교는 1954년 3월 31일 문을 닫았다. 대구의 피난학교는 어려움 속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을 멈추지 않은 대한민국 교육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청춘의 궐기, 2·28 민주운동

#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뿌리로 평 가받는 대구의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자. 이를 통해 2·28 민주운동에 담긴 민주주의의 정신과 가치를 되새 긴다.



2 · 28민주운동기념관 전시실

2·28 민주운동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광복 이후 1948년 8월 정식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이승만과 그가 이끄는 자유당이었다. 그들이 10년 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 친일파청산의 실패와 정부의 부패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갔다. 1960년 3월 15일 펼쳐질 제4대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의 운명도 불확실했다. 경쟁자였던 해공 신익희 후보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은 확실시됐지만, 그의 정치적 후계자였던 부통령 후보 이기붕의 상황은 불안하기만 했다.

결국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려 정부와 여당은 갖가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다. 1960 년 2월 28일 대구 수성천변(신천)에서 열릴 야당(민주당) 후보의 선거 유세에 군중이 모이는 것이 두려워 불법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날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 사람들의 출근은 물론 학생들의 등교까지 지시하는 조치였는데, 2월 28일은 일요일이었다.

일요일 등교 지시는 2월 25일 경북고등학교에서 종례 시간에 학생들에게 통보되었다. 학생들은 일요일 등교 지시 이유가 선거 유세 참여를 막기 위해서란 걸 알고 격분하였고, 대구고와 경북여고, 경북대사대부고 등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일요일 등교 지시에 분노하였다.

대구의 고등학생들은 학교별로 학생위원회를 열어 일요일 등교 지시를 철회할 것을 학교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월 27일 경북고등학교 학생부위원장인 이대우의 집에서 경북고, 대구고, 경북사대부고 학생 대표가 참가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학생들은 28일 오후 1시를 기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2 · 28 당시 대구 중앙로에 진출한 고교생들

민주주의를 위해! 대구 시내에서 궐기한 학생들

2월 28일 경북고등학교 교정에서는 학생 대표가 결의문을 읽고 있었다. 그들의 결의 문은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피 끓는 학도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 기 위하여 싸우련다."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비슷한 시각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시 위를 결의하는 행사가 열렸고, 학생들은 이어 교문을 나와 대구 시내로 향했다.

경북고, 사대부고, 대구상고(현 대구상원고), 대구고, 대구농고(현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대구공고, 경북여고, 대구여고 학생들의 인파로 도심이 들끓었다. 시위대는 곧 일요일 등교 지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행진을 시작했다.

반월당에 모인 학생들이 향한 방향은 경북도청(현재의 경상감영공원) 쪽이었다. 경찰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구둣발로 학생들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연행되었으나,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박수로 격려했고, 일부는 도망치는 학생들을 숨겨주기도 했다.

2월 28일 대구에서 터진 시위의 함성은 몇몇 도시로 이어졌다. 3월 15일 선거 당일에는 경상남도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를 3·15 의거라고 한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서울에선 경찰의 폭력 진압과 실탄 사격으로 186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4·19의 외침이 폭발하게 된다. 결국 국민의 민주화 요구는 며칠 후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선언(4월 26일)을 이끌어내고야 마는데, 1960년 봄에 일어난 이 민주화운동을 4·19 혁명이라고 한다.

대구에서 일어난 2:28 민주운동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었다.



#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을 뜻한다. 정부는 그 기념일마다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의식과 행사를 주관한다. 2·28민주운동은 2018년 국가기념일로 공식 공포되었다. 4·19혁명이일어난 결정적인날인4월 19일도 국가기념일이다.



# 나라 구하기에 앞장선 선배들의 발자취를 찾아서

근대부터 현대까지 대구의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남긴 발자취는 크다. 대구에는 이들 선배 학생의 학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물론,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선 역사를 기념하는 교육과 추모의 공간이 많다. 그중 5곳을 소개한다.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구교육박물관은 교육도시 대구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대구의 교육 관련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는 곳으로 근대부터 현대까지 대구 교육의 발자취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7개의 전시실과 5개의 체험실을 갖추고 있다. 교육전시관에 있는 2·28전시관에 가면 2·28 결의문, 관련 신문기사 등을 볼 수 있다.

# 대구에는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는 탑이 많은 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1961년 과거 명덕로터리에 세워졌고, 지금은 두류공원에 있는 기념탑이다. 이 외에도 경북고, 대구고, 상원고, 대구공고에 2·28기념탑이 건립되어 있다. 한편 경북고등학교역사관에서도 이 학교의 역사와 함께 2·28

민주운동 자료를 만날 수 있다.





아래는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의 포스터와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설명글입니다. 영화를 보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전쟁 영웅들을 생각해 봅시다.



장사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당시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북한 군의 주의를 분산하고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1950년 9월 14~15일 경북 영덕 군 남정면 장사리에서 실시된 군사작전을 말한다. 당시 작전에 참여한 인원의 대부분은 2주간의 짧은 훈련기간을 거친 14~17세의 어린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실은 문산호는 태풍 탓에 상륙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좌초되었고, 해안에 상륙한 학도병들은 식량 보급도 없는 상황에서 6일간이나 처절한 전투를

치러 772명 중 139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행방불명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는 데 큰 공헌을 남겼음에도 장사상륙작전은 기밀에 부쳐졌다가 1997년 장사리 해변에서 작전 중 사용된 문산호와 유해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관련 문서들도 기밀이 해제되면서 그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장사리전투는 한국전쟁의 전세를 바꾼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이지만 그 주역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꿈 많은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사 훈련을 2주밖에 받지 않은 데다 식량도 무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리면서도 북한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항복을 하고 살아날 방법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끝까지 명예롭게 싸우다 죽었습니다. 비록 역사에 이름을 남기진 못했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운 정신을 생각할 때,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때의 이름 없는 영웅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3

#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경상북도의 역사

###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경상북도에선 조선 후기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려는 의병운동이 연이어 일어났다. 일제강점기라고 예외일 순 없었다. 이 시절에 활발히 펼쳐진 주요 독립운동과나라를 위해 헌신한 역사적 인물들을 기억하자.



안동 지역의 의병장 권세연의 격문(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경상북도는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자랑스러운 명성을 가진 땅이다. 나라를 구하려는 의병운동,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 까닭이다. 경북에서 일어난 주요 독립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 1894년 안동, 최초의 의병운동이 일어나다

19세기 말, 조선은 외세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았다.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일본이었다. 이 땅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키워 나가던 그들은 조선 정부를 위협하려고 1894년 7월 군대를 동원해 경복궁까지 점령하기에 이른다.

분노한 민중의 저항이 있었다. 그해 7월에서 9월 동안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지역에서 일어난 항일의병운동이 대표적이다. 갑오년(1894)에 일어난 의병이어서 이들을 갑오의병이라고 부른다.

그해 안동과 문경 등에서 모여든 의병 수는 2000여 명에 달했다. 의병 부대는 9월 상 주에 주둔한 일본군 부대를 공격하는 용맹함을 보였다. 안타깝게도 전투에서 패하긴 했지만, 갑오의병들의 항거는 조선 말기 일본에 맞선 최초의 의병운동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1895~1896년 다시 들고 일어나 싸우다

1895년 일본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친일파 내각은 같은 해에 강제로 단발령을 시행했다. 이런 현실에 분노한 조선의



영국 기자가 촬영한 항일의병들

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곳곳에서 대규모 의병운동이 일어났다. 을미년(1895)에 일어나 을미의병이라 불리는 이들은 전국 곳곳에서 친일 반민족 벼슬아치들을 처단하는 한편 일본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이때 경상북도의 여러 곳에서도 의병운동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안동, 김천, 성주, 영해 등이었다.

# 1907년, 허위와 신돌석이 이끈 의병부대

1905년 일본은 조선의 고종황제를 협박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체결하였다. 1907년엔 헤이그밀사사건의 책임을 물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여기에 분노한 의병운동이 다시 조선 곳곳에서 일어났다.

1895년에 을미의병으로 활동한 구미 출신의 허위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의병 부대를 조직한 그는 전국의 의병장들에게 연합 부대를 편성해 서울로 진격하자는 격문을 보낸다. 마침내 13개 도에서 모인 의병 1만여 명이 경기도 양주에 집결했고, 허위의 선 발부대는 비록 패했으나 1908년 1월에 서울 동대문 밖까지 진격하는 기세를 보였다.

1907년에 활약한 경북 출신 의병 지도자에는 문경 출신의 이강년, 영덕 출신의 신돌석도 있었다. 이강년이 이끄는 의병은 경상북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일본과 여러 번 전투를 벌여 승리했고, 신돌석 부대는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연이어 일본군을 격파하는 성과를 올렸다.









독립의 그날을 위해! 만주에서 벌인 독립운동



경상도의 선비들이 주도한 또 하나의 독립운동, 파리장서운동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1919년, 프랑스 수도 파리에 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의 국제 관계를 의논하는 파 리강화회의가 열릴 예정이었 다. 이때 경상북도 성주 출신 의 김창숙 등 경상도의 선비 들이 중심이 되어. 파리강화 회의에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 는 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벌 였다. 이것을 파리장서운동이 라고 한다. 장서(長書)란 사연 을 길게 적은 편지를 뜻한다. 일본은 선비들의 집단 독립운 동이 있은 후 이 운동을 주도 한 여러 사람을 체포하였다.

1910년 조선을 완전히 병합한 일본은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국내에서 독립 운동을 펼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선의 북쪽 국경 너머에 있는 만주로 건너가 조국의 해방을 위해 몸을 바쳤다.

경상북도에서도 많은 이들이 만주로 향했는데, 안동의 이상룡은 1911년에 일가친척을 이끌고 만주의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1911년에서 1918년까지 그는 서간도 조선 동포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우며 신흥강습소라는 학교를 세워 조선인 청년 교육에 노력한다 (훗날 독립군 양성의 핵심 기관인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한 곳이다). 이상룡은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에 추대되어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는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32년 만주에서 숨을 거둔다.

또 다른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로는 김동삼이 있다. 1910년 만주로 망명한 그는 이상 룡을 도와 신흥강습소 설립과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앞장섰다. 1919년엔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서로군정서 참모장을 맡아 독립군을 지휘했으나, 1931년 중국 하얼빈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된다. 재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해방 전인 1937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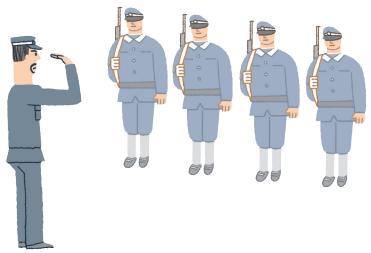
만주에서 활동한 경북 출신 독립운동가 중에는 여성도 있다. 먼저, 영양군에서 태어난 남자현을 들 수 있다. 1919년 만주로 망명해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그는 만주의 조선인 마을을 돌며 독립의지를 드높이는 한편 체포된 독립운동가 석방, 국제사회를 향한 조선 독립 호소에 앞장섰다. 남자현의 활동은 이러한 평화적 수단에만 그치지 않았다. 1924년 경성(서울)의 사이토 총독, 1933년 만주 주재 일본대사 암살 계획에도 참여



영양군에 있는 남자현 의사의 생가

한 것이다. 그러나 두 계획 모두 실패했고, 일본 대사 암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과 감옥 생활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 그는 결국 이때 쇠약해진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남자현과는 다른 방식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경북 출신 여성도 있다. 독립운동가들의 식량과 옷 등을 마련하느라 애를 쓴 허은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구미 출신으로 1915년 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한 그는 1922년 이병화와 결혼하며 이상룡의 손자며느리가된다. 허은은 1932년 고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생활을 돕는일에 헌신하였다.







한국생명과학고 교정의 항일기념비와 조선회복연구단원들의 광복 기념 촬영

안동농림학교 학생들의 항일운동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은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대구와 경상 북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안동 지역에서는 1920년대에 청년회가 조직되어 교육을 통한 구국활동이 활발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신간회 안동지회 설립(1927), 신사참배 거부운동(1939) 등이 펼쳐졌다. 또 안동농림학교(현 한국생명과학고) 학생들의 항일운 동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

일제강점기 말기,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이 조선 학생들에게 학도병 지원을 강요하자 안동농림학교 학생들은 일본 군대에 끌려가 죽기보다 차라리 민족을 위해 싸우다 죽자 고 결의하게 된다.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1943년에 조직한 비밀 단체가 조선회복연구 단이다.

조선회복연구단은 '안동농림학교 무기고에 있는 총으로 안동의 경찰서와 헌병대를 기습·점령하고 철도와 통신망을 파괴한 뒤 의성 지역으로 진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를 눈치 챈 일본 경찰이 1945년 2월 초 관련자들을 검거함에 따라 64명의 학생이 체포되었다. 혹독한 고문 끝에 한 학생이 사망하고, 남은 이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다음날 풀려날 수 있었다.

감옥에서 석방되며 "아! 독립이다, 독립이다! 마침내 우리의 나라를 찾았다!"고 외쳤다는 안동농림학교 학생들. 이들의 항일 투쟁은 1894년 갑오의병을 시작으로 51년간 줄기차게 이어진 안동 독립운동사의 전통을 잇는 것으로, 경상북도 지역의 대표적인 학생항일운동으로 꼽힌다.

# 경상북도에 깃든 항일의 발자취들

독립운동의 성지, 경상북도의 여러 지방엔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를 기념하는 곳이 있다. 그중 몇 곳을 지면에서 만나 보자.



### 안동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안동시 임하면에 있는 기념관으로 2007년 안동독립운동기념관으로 개관한 후 2014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확대·승격되었다. 기념관이 위치한 내앞마을은 1907년 안동의 독립운동가들이 협동학교를 세워 애국계몽운동을 펼친 곳이다. 경북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많이 갖추고 있어 독립운동사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 구미 왕산허위선생기념관

왕산은 허위의 호로서, 이 기념관은 구미 출신 유학자이자 의병 지도자였던 허위의 순국 101주년이 되는 2009년에 개관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전시실과 시청각실, 어린이도서관도 갖추고 있다. 또 허위 선생의 생가 터에는 동상과 추모관 등이 있는 허위선생기념공원이 있다.



# 문경 운강이강년기념관

문경시 가은읍에 있다. 조선시대 말기 의병 지도자인 운강 이강년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의 생을 추모하는 곳이다. 기 념관 마당에는 이강년의 동상과 그의 활동을 기록한 비석 이 있으며, 기념관 내에는 선생의 생애를 보여 주는 여러 자료와 그를 추모하는 사당(의충사)이 있다.



# 경북의 다양한 독립운동 유적지들

영덕군 영해면에는 3·1의거탑이 있다(사진). 1919년 3월 18일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이다. 또 영덕군 축산면에 가면 이곳 출신 의병대장인 신돌석의 생가와 기념관이 있다. 영양군에는 이곳 출신 독립운동가인 남자현의 생가가 있다. 이 외에도 경북에는 의성군의 3·1 운동 경북시발지기념공원, 청송군의 항일의병기념관, 그리고 영주시 풍기읍의 대한광복단기념공원 등이 있다.